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소식

THE NEWSLETTER

The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발행인 : 유구종

발행처 :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6403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남원로 150(강릉원주대학교)

과학기술대학 3호관(W15) 405호 유구종 교수 연구실

TEL : 010-3638-2459 / 홈페이지 : www.open33.or.kr

E-mail : openchild33@naver.com

편집인 : 백경순

4차 산업혁명과 교육단상

나 성 식

(백석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4차 산업혁명이 오다

오늘날 우리의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증기기관이 발명으로 시작되었으며, 생산을 기계화한 ‘기계화혁명’으로서 경공업이 등장하게 되었다. 2차 산업혁명은 19-20세기 초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대량생산 혁명’으로서 석유, 자동차, 전기, 기계 산업 등 중공업이 중심이 되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정보혁명으로서 정보통신산업이 중심이 되었으

며 생산이 자동화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는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에서 언급되었으며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혁명이다. 3차 산업혁명이 ‘지식정보’ 혁명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능정보혁명’으로서, ‘인공지능’과 ‘정보기술’의 융합을 통해 사물의 지능화, 생산의 지능화가 이루어진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연결과 융합’ 그리고 ‘지능화’라고 할 수 있다.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고 이러한 연결을 통해 수집되는 거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러한 예측을 통해 생산 체제와 서비스 체제가 진화한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등의 지식정보기술이 3D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의 신기술과 연결 융합되어 지능화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혁명과 사회변화

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존의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와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 예견된다.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4차 산업혁명은 기술과 기술, 실재와 가상, 기계와 생명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변화를 통해서 인간노동 기반 산업구조를 바꿀 것이며, 이전의 산업혁명을 통한 변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경제적 변혁을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초입에 있는 현 시점에서정보기술 기반으로 한 공장 없는 산업을 중심으로 자본이 지속적으로 집중되고 있다.

생산, 물류, 마케팅, 금융, 방송 등 산업 각 분야에서 인간의 노동 비중 보다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플랫폼기반 중심으로 커다란 구조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있다. 아마존의 물류기술 및 유통서비스, 우버택시로 대표되는 운송서비스, 구글 같은 온라인 검색과 빅데이터 서비스, 유튜브 같은 온라인 콘텐츠서비스, 페이스북 같은 SNS서비스 등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다국적 기업에 거대 자본이 집중되었다.

기계적이고 반복적 노동이 필요한 일,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일, 그리고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일은 이미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고, 자동화 로봇 기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산·물류·유통 체계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인공지능기술이 더욱 발전하여 의료, 법률, 금융 등 전문가 분야의 일도 인공지능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예견된다.

혁명이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세계관이 등장함으로써 경제체제와 사회구조가 완전히 바뀌는 것

을 말한다. 1, 2, 3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이 기계를 ‘다루는’ 지위를 가졌고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해왔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따른 생산성 향상, 물질적 풍요, 생활 편의성 새로운 형태의 노동 창출 등의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반면 산업혁명은 생태계 파괴, 환경오염, 지구 온난화문제를 야기 시켰다. 기술 혁신을 통한 수익 극대화를 위해 생산에 인간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으며, 선진국과 후진국의 과학 기술격차도 심각하게 커지고 있다.

1차 산업혁명은 토지와 노동력 소유 여부를 통해 신분과 계급이 나뉘어졌던 신분계급사회는 붕괴시켰고, 농경사회를 경공업과 상업 중심의 산업사회로 변화시켰고 자본주의를 발달시켰다. 그러나 농민층이 와해되어 저급 노동자층이 형성되었고 아동노동문제와 도시화문제가 나타났다.

2차 산업혁명의 대량생산 시스템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 되었고 이를 통해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전기에너지와 기계를 이용한 대량생산과 분업체제는 숙련 노동자의 중요성과 그 수요를 축소시켰고, 자본과 기술을 소유한 생산자와 노동자의 삶의 격차가 벌어지게 되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를 이용해 생산과 유통 체계를 자동화 시켜 대량 생산·유통혁명을 일으켰다. 그러나 생산설비가 자동화되고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블루칼라 노동자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공평한 배분 문제와 사회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다.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변화 예측에서도 생산성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일리 감소라는 부정적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초지능화’된 기계와 로봇이 비숙련 노동 일자리에 대체되고 경영, 의료, 법률, 창작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일까지도 대신 할 것이라

고 예견된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진 생산체제의 구조적 변화로 물질적 풍요로움을 얻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회적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생산에서의 노동 소외와 양극화라는 어두운 면 또한 있었음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미래의 교육, 미래를 위한 교육

4차 산업혁명기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사회구조 변화는 교육분야에도 급격한 변화를 줄 것이다. 교육체제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고 흥미로운 학습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에서도 큰 변화가 예측된다. ‘학습’을 가상의 공간과 사물을 통해 간접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상현실 기술, 현실세계에 가상의 사물이미지를 합성하여 볼 수 있는 증강현실 기술 등은 이미 다양한 스마트 매체를 통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개인의 개성, 학습역량,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고도화된 개별 맞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미래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인간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 생체기술 등의 발달로 인해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모호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인간성 상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인간과 인간 간의 소통 보다,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이나 기계 간의 소통 비중이 더 높아질 수 있고, 따라서 타인과 사물에 대한 공감능력과 배려가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다.

슈퍼딥러닝 기술이 탑재된 초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기계와 로봇을 사용과 지배의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면 오히려 초인공지능 로봇 때문에 호모사피엔스가 멸종할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상황이 예측되기도 한다. 인공지능 로봇을 포함 우리와 함께 있는 ‘인공지능 사물’을 이제는 인

간과 함께하는 하나의 ‘존재’이며, ‘자연’, ‘인간’과 함께 같은 ‘생태계’ 안에 같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이 살아가는 윤리의 문제는 더 이상 인간-인간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인간 그리고 동시에 인간-인공지능 간의 문제를 포함 것으로 그 범주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인간과 로봇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공생하는 새로운 세계관과 철학이 탐구해야 한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미래에는 ‘특정 개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능력 계발’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기초기술(foundational skills)’, ‘역량(competencies)’, ‘인격자질(character qualities)’ 등 3가지 범주로 계발되어야 할 중요한 능력을 제시했다. ‘기초기술’은 독해력, 수학 리터러시, 과학 리터러시, ICT 리터러시, 금융 리터러시, 문화 및 시민리터러시 같은 능력이며, ‘역량’은 협동능력, 소통능력, 창의력, 비판적사고/문제해결력 같은 능력이고, ‘인격자질’은 일관성/도정정신, 적응력, 주도성과 같은 능력이다.

그 중 ‘역량’과 ‘인격자질’을 ‘사회·감성적 학습능력(Social and Emotional Learning Skills)’이라고 하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러한 사회·감성적 학습능력은 더욱 더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즉 미래 사회에 적응하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물 간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학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분야에서도 이미 ICT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우수한 온라인 동영상상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초중고교 수준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비영리교육서비스 칸 아카데미(Khan Academy),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온라인 공개수업 체제인 무크(MOOC) 등은 열린교육 및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참여수업을 통해 캠퍼스와 강의실 없앤 대학 미네르바 스쿨

(Minerva School)은 일정한 위치에 고정되었던 물리적 교육공간인 캠퍼스를 전 세계 주요도시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새로운 대학교육 시스템이다. 앞으로 ‘학교’라는 정해진 공간에서 일정한 시간에 이루어 지던 교육은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교는 이제는 물리적 공간을 의미가 아니라 지능화된 ‘학습시스템’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교육방법의 혁신보다 중요한것은 ‘교육의 수동성 극복’이다. 1,2,3차 산업혁명을 통한 급격한 산업과 사회의 변화와 변혁에도 불구하고 ‘교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시대변화에 따라 교육내용이 수정되고 첨단 스마트 매체를 활용한 교수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나, 학교라는 틀에서 정제된 지식을 담아 놓은 ‘교과서’ 내용을 교사가 가르치고 학생이 배우는 ‘교사와 학생’, ‘가르침과 배움’이라는 ‘수동적 교육’ 패러다임은 그 대로 유지되어 왔다.

산업혁명과 교육과의 관계에서 교육은 ‘산업’ 관점에서 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초고속화(Hyper-Speed) 시대에는 지식과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과거의 ‘지식’을 수동적으로 배우고 기억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인재상은 지식과 정보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다. 학습자는 더 이상 지식 소비자가 아니라, 지식 생산자로서의 능력을 가져야 한다. 지금은 언제 변할 지도모르는 지식이나 기술을 수동적으로 배양하는 교육은 의미가 없으며, 학습자에게 미래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어렵다.

미래의 초고속 변화 시대에서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적응역량’이 있는 사람이며, 인간, 자연, 인공지능을 포함한 새로운 생태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관계역량’이 갖춘 사람이다. 개인의 지식보다는 삶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출 수 있는 교육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학 회 활 동 보 고

1. 2018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일 시: 2018년 5월 12일(토) 08:30-16:30

장 소: 서울교육대학교 종합문화관

제 1 부 사회: 한종화(강릉원주대학교 교수)

기조강연.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만남! 미래교육의 방향’

/ 발표: 최재봉(성균관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1. ‘과학기술 시대와 미래 영유아교육의 방향’

/ 발표: 문무경(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주제발표 2. ‘과학기술 시대와 미래 영유아교육 현장’

/ 발표: 오세경(전남과학대학교 교수),

유나영(시립도이장애전문어린이집 교사),

유구중(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제 2 부 사회: 이신영(세한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3. ‘자연, 인간 그리고 미래 영유아교육의 방향’

/ 발표: 이병래(중부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4. ‘자연, 인간 그리고 미래 영유아교육의 현장’

/ 발표: 정대현(충신대학교 교수),

김지은(하리숲학교 교사)

종합토론 / 미래 영유아 교육의 방향

토론: 곽노의(서울교육대학교 교수)

향후 누리과정과 교육부 정책 방향

토론: 석광우(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2. 하계학술세미나 및 이사 모임 개최

일 시: 2018년 7월 14일(토) 10:30-14:50

장 소: 광주광역시 동강대학교 학술정보원

사회: 정상녀(동강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1. 교수방법 및 매체분과 연구회

‘4차 산업혁명시대 인성이 실력이다’

/ 발표: 김정란(광주여자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2. 교수방법 및 매체분과 연구회

‘FHT 기반 교수학습 모형의 개발 및 적용’

/ 발표: 하정윤(순천제일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3. 프로그램 분과 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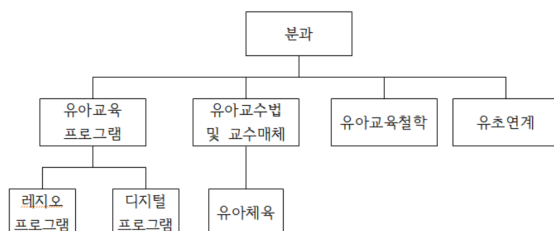
‘자유선택활동과 바깥놀이, 2시간 맘껏놀이’

/ 발표: 최은설(대구 일성유치원 원장)

종합토론 / 진행: 김영옥(전남대학교 교수)

3. 통합분과 개편안내

본 학회 분과에 유초연계분과를 새로 신설하였으며, 유아교수법 및 교수매체분과의 하위 분과로 유아체육분과를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유아교육프로그램분과를 레지오프로그램분과와 디지털프로그램분과로 분리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4. [교육부] 하계 통계특강 및 분과세미나 개최

일 시: 2018년 8월 11일(토) 13:30-17:10

장 소: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403호

사회: 김은아(원광보건대학교 교수)

통계특강 1. 요인분석 및 회귀분석

‘요인분석 통계처리 및 해석’

‘회귀분석 통계처리 및 해석’

/ 발표: 박춘성(상지영서대학교 교수)

통계특강 2. AMOS를 활용한 통계처리 및 해석

‘구조방정식의 이해’

‘AMOS 활용 통계처리 및 해석’

/ 발표: 박춘성(상지영서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유초연계 분과 연구회

‘학교 교육의 동향과 유초연계 방안’

/ 발표: 김창복(서울교육대학교 교수)

5. [총무부]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지원 사업 선정

2018년도 한국연구재단 학술대회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1000만원을 지원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학술대회 개최 지원금으로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의 자생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정보 유통을 통해 학회의 학술 활동 활성화 및 학술대회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 [유초연계분과]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유초연계분과 개설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유초연계분과 개설을 하였으며, 2018년 8월 11일(토) 서울교육대학교 인문관

403호에서 분과개설기념 주제발표를 서울교육대학교 김창복교수가 하였습니다.

분과 회장 : 김창복 (서울교육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총무 : 정혜린 (서울교대, jyang0821@naver.com)

월례세미나 계획: 매월 1회

(매달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12시 / 서울교대 인문관 403호)

9월	2018년 9월 22일(토)
10월	2018년 10월 27일(토)
11월	-
12월	2018년 12월 22일(토)

분과회원 참여자격: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회원이면 누구나 가능.

7. [매체분과] 하계학술세미나 및 단합대회 개최

광주광역시 동강대학교에서 하계학술세미나가 개최되었으며, 세미나 후 이사 및 회원 분들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관광을 하였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어린이 체험관 및 어린이 도서관을 가이드 안내에 따라 둘러보았으며, 뜻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8. [프로그램분과/매체분과] LG U+ 협력사업

LG U+ 아이들나라2.0 런칭파티 강연
‘미디어와 함께하는 미래 유아교육’

- * 일 시: 2018년 8월 20일(월) 10시
- * 장 소: 키즈카페 PIM
- * 강 연: 유구종(강릉원주대학교 교수)

9. [프로그램분과/매체분과] 2018년 4차 통합분과세미나

일 시: 2018년 10월 6일(토) 10:00-12:40
장 소: 세빛섬 3층 비스타 레스토랑

사회: 박원순(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기조강연. 프로그램 분과 연구회

‘유치원에 간 김교수’

/ 발표: 김정호(엄마기자학교 교장)

주제발표 1. 교수방법 및 매체분과 연구회

‘유아코딩교육 활동의 실제’

/ 발표: 김은아(원광보건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3. 교수방법 및 매체분과 연구회

‘유아체육 프로그램 현황과 과제’

/ 발표: 김원준(사단법인 한국유아체육지도자협회 이사장)

종합토론 / 진행: 최철용(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수석부회장)

10. [편집부] 학술지 평가 결과

열린유아교육연구가 한국연구재단에서 실시하는 2018 학술지 평가 결과 우수한 성적으로 ‘등재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평가준비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양진희 편집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편집회의에 참석해주신 편집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1. [편집부] 열린유아교육연구 발행 보고 및 편집회의

2018년 열린유아교육연구 발행 보고

권(호)	투고수	발행 일	게재 수	기타	제작 수
23권1호	35	2월 28일	19		450부 (별책20부)
23권2호	36	4월 30일	15		455부 (별책20부)
23권3호	29	6월 30일	13		490부 (별책20부)
23권4호	37	8월 31일	17		470부 (별책20부)
23권5호	33	10월 31일	17(1)	(1) 이월	인쇄 예정중
23권6호	33	12월 31일	심사 진행중		
총투고	203				
재투고 반영	3				
최종	200		82 (5호현재)	41%	

※ 온라인 투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 내용
 - 온라인 투고 시스템은 국내 학술단체의 정보화 기반 마련과 논문투고 및 심사과정을 투명화 하여 논문게재의 객관성 및 신뢰성 증대를 위한 방안으

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심사 평가의 주요 항목임.

2) 진행상황

- 누리미디어(DBPia)와 투고시스템 이용 계약 체결 22권 1호(11월말 투고, 2017년 2월 발간)부터 온라인 투고 진행
- 22권 2호(1월말 투고, 2017년 4월 발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23권 5호까지 진행 되었고, 현재 23권 6호 1차 심사진행 중에 있음.

※ 2018년도 학술지지원사업 선정

1) 내용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9년도 학술지 지원사업 공모: 2019.01~2019.12.31. 사이에 발행되는 학술지에 대한 지원

2) 진행상황

- 2019년도 학술지 지원사업 선정으로 금 8,500,000원 지원 확정됨.

※ 2017년도 학술지지원사업 선정

1) 내용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8년도 학술지 지원사업 공모: 2018.01~2018.12.31. 사이에 발행되는 학술지에 대한 지원

2) 진행상황

- 2018년도 학술지 지원사업 선정으로 금 8,500,000원 지원 확정됨.

※ 2018년 학술지계속평가 [5월 12일 자료제출 - 10월15일 평가결과발표]

1) 결과 - 등재유지

2) 편집회의를 통한 개선사항

- (1) 투고신청서에 사전점검표 작성 - 편집규정 및 초록의 엄정성 평가 기준 적용
- (2) 연구윤리 규정을 총무부와 협력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

- (3) 학술대회 관련 홍보 자료를 동영상으로 홈페이지에 공지하였음.

3) 결과분석 -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 (1) 투고논문의 참고문헌 기록 형식에 DOI 기입을 권장 함.

- (2) KCI 자기인용지수가 높은 점

- (3) KCI 유사도 기준을 20%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할 필요성

12. [프로그램분과] 레지오 에밀리아분과 추계 학술모임

일 시: 2018년 10월 26일(금) 18:00~27일(토)10:00

장 소: 누리한옥 게스트하우스

(종로구 자하문로1다길 6-1)

일정		프로그램
26일	18:00	저녁식사(선인재)
	19:00	발표: 유치원교사의 스승 되기 (경성대 홍순옥 교수)
	20:00	태극권 안마배우기
	22:00	취침
27일	08:00	아침식사(숙소)
	09:00-10:00	유치원 현안에 대한 토의

주차장: 종로구 필운동227 사직동 새마을금고 주차장

회 원 동 정

1.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김영주 교수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유아교육과 ‘청강 페스티벌’

* 주 제: 자연에서 놀이하며 함께 크는 아이들,
청강 놀자공

* 일 시: 2018년 10월 26일(금), 27일(토)

* 장 소: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해월리 캠퍼스와
건지산 둘레길

* 등 록: 인터넷 사전 접수 9월 오픈 예정

2. 경북대학교 이효림 조교수

임용: 경북대학교 가정교육과 조교수 임용

3. 염정은 회원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2018년 8월 17일)

4. 임영숙 회원

임영숙 회원 승진발령
(2018년 9월 1일자 광주전국유치원 원장)

학 회 공 지 사 항

1. 2018년도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 한국영유아 보육학회 추계통합학술대회 개최

본 학회에서는 2018년 추계학술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제: 영유아 행복권 보장을 위한
유보정책의 현황과 과제

일시: 2018년 11월 16일 금요일

장소: 국회도서관 대강당

2. 2018년도 연회비 납부 안내

- * 가입비: 10,000원 (일반, 기관회원 공통)
- * 연회비: 일반회원 50,000원 /
기관회원 60,000원(연 1회 납부)
- * 평생회원: 400,000원 (40세이상)
- * 신입회원인 경우는 가입비: 10,000원
(일반, 기관회원 공통)
- * 납부방법:
 - **무통장입금:** 농협 351-0933-1140-13
예금주: 유구중(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 참고사항:

- 1) 연회비는 3월부터 익년 2월 28일까지이며, 3월에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2) 학회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 학회 관련 정보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학회지 원고 모집

「열린유아교육연구」는 다음과 같이 발행됩니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논문투고 마감일	전년도 11/30	01/31	03/31	05/31	07/31	09/30
학회지 발행일	02/28	04/30	06/30	08/31	10/31	12/31

「열린유아교육연구」 제24권 1호에 원고를 투고하실 분은 2018년 11월 30일까지 심사본 원고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투고 바랍니다. 논문투고에 관련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투고방법

1) 온라인 투고 시스템

학회홈페이지(www.open33.or.kr)의 온라인 논문투고 바로가기 이용

2) e-mail: openhelper@hanmail.net

openeditor1516@gmail.com

(상기 e-mail로 2곳 모두 보내주셔야 합니다)

* 주소: (27909)

충청북도 증평군 대학로 61

한국교통대학교 증평캠퍼스 유아교육과
양진희교수 연구실

* Tel: 010-8875-8018 박지예 간사

* 논문투고 계좌번호

농협 302-1167-9363-71 예금주: 양진희

- 기타 관련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투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